



따로 또 같이 방과후 수업, 원어민화상콜센터

●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 원어민화상콜센터 파견교사 | 정지선



❖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병 및 확산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실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발병 전에는 ‘플립러닝(거꾸로 교실)’ 등을 통해 일부 교사만이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원어민화상콜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수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상콜센터의 수업은 ‘원격화상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직접 화상강의센터를 구축하고 원어민을 고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광주 원어민화상콜센터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을까? 지금부터 광주 원어민화상콜센터의 운영 계기와 현황, 운영상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원어민화상콜센터 오픈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 3월 12일에 원어민화상콜센터를 오픈하였다. 화상콜센터는 시교육청의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5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 4개의 영역(재능진단·육성, 교실 수업 지원, 학생 자율학습 지원, U-러닝 인프라 구축)으로 추진되었는데, 원어민화상콜센터는 교실 수업 지원 사업으로 학교 영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원어민화상콜센터의 개소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학교 정규 수업에 화상시스템이 적용된 최초 사례

그 당시 원어민과의 화상수업 사례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나 사교육에서 엿볼 수 있었다. ‘언택트’ 열풍이 교육을 포함한 전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지금과 달리, 교실 수업에서 원어민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생소한 시절이었다.

• 원어민의 상시 근무를 통한 정규 수업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원어민화상콜센터 개소는 센터에 원어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근무하면서, 원어민 미배치 학교의 정규 수업 지원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게 되는 최초의 시도였다.



↑ 2009년 3월 12일 원어민화상콜센터 개관식



↑ 센터 개소 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교육감 등)이 원어민화상콜센터의 화상수업 참관

원어민화상콜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

❖ 원어민화상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정규 수업	
• 대상	초/중/고 학교 정규 수업
• 형태	교실주도형(교사 컴퓨터 및 대형 모니터(TV등) 활용)
• 방법	원어민 교사와 사전 협의 후, 한국인 영어교사 주도로 수업 진행

방과후 수업	
• 대상	초3~초6 신청자
• 형태	일대일(1:1) 접속형 (학생 개인별 PC 활용하여 그룹지도)
• 방법	원어민 교사와 4명의 학생이 동시 접속하여 원어민 교사 주도로 수업 진행



↑ 원어민과 학교 간 정규 수업

일대일 수업	
• 대상	초3~중3 신청자
• 형태	일대일(1:1) 접속형 (학생 개인별 PC 활용하여 1:1 지도)
• 방법	원어민 교사가 자체 개발한 20개의 주제별 파워포인트/워크시트 등 활용하여 수업 진행

방학 프로그램	
• 대상	초5~초6 신청자
• 형태	일대일(1:1) 접속형 (학생 개인별 PC 활용하여 1:1 지도)
• 방법	원어민 교사가 1:1 회화수업 운영,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은 말하기 동영상 탑재



↑ 원어민과 학생의 일대일 수업

❖ 원어민화상콜센터는 개소 이후, 10년 이상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하는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 방과후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생의 영어학습 흥미 유발,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4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영어교육 격차해소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서도 전국 1위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정규 수업을 화상수업으로 운영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수업, 일대일(1:1) 수업 등의 프로그램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내실 있는 수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개년 원어민화상콜센터 수업 참여 학생 수 및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 학생 수	9,672명	6,063명	5,061명	5,750명	5,487명
만족도 조사 결과(%)	95.48%	96.02%	96.50%	96.01%	96.09%

원어민화상콜센터의 방과후 수업 소개

❖ 방과후 수업이란?

- 방과후 가정에 있는 초3~6학년 학생들이 컴퓨터, 노트북, 또는 각종 모바일기기(휴대폰, 태블릿등)를 통해 화상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http://native.gen.go.kr>)하여 원격으로 원어민과 함께 참여하는 영어회화 수업
- 원어민 교사 1명이 학생 4명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수준별 그룹 수업을 진행하며, 주 2회(월/수 또는 화/목)에 걸쳐 각 20분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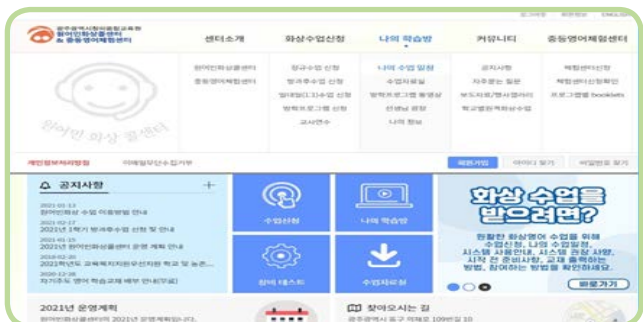
방과후 수업 참여 시, 수강료가 무료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가 자체 개발한 교재 또한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및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 기회 우선 부여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비(웹 카메라, 헤드셋) 지원 등을 통해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매 학기말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수요자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방과후 수업 참여 방법

- 참여 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 수강 인원 : 총 320명 (초3~4학년 : 각 120명씩, 초5~6학년 : 각 40명씩)
- 수강 기간 : 매년 학기별 운영
※ (2021년 기준) [1학기] 2021. 3. 16. ~ 7. 15., [2학기] 2021. 8. 23. ~ 12. 23.
- 신청 방법 : 원어민화상콜센터 홈페이지(<http://native.ge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업 참여 방법 : 원어민화상콜센터 홈페이지 > '나의 학습방' > '나의 수업 일정'에서 '수업 시작' 클릭하여 수업 입장
- 학생 개인 준비물 : 웹 카메라, 마이크가 부착된 헤드셋, 교재
(원어민화상콜센터에 직접 방문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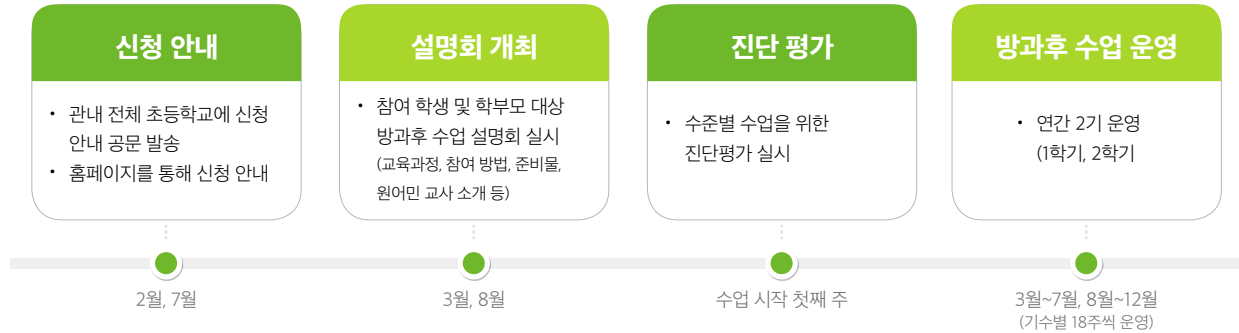


원어민화상콜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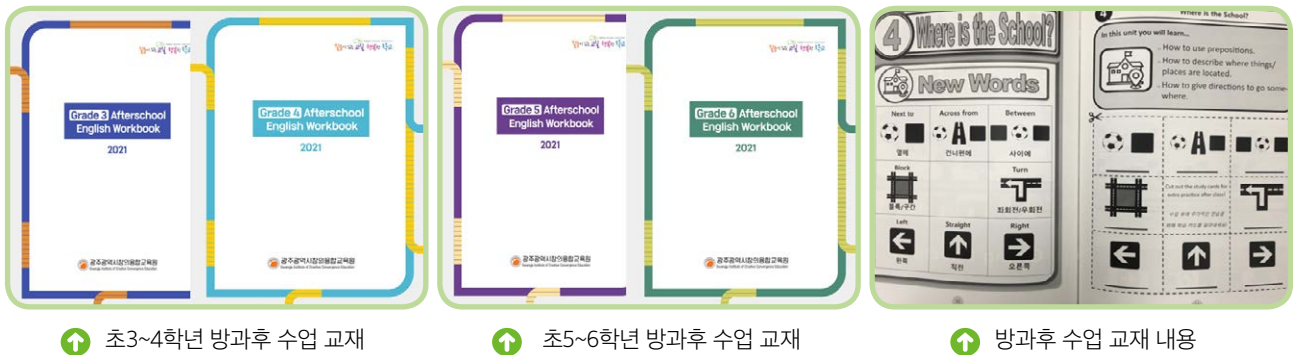
홈페이지에서 '나의 학습방' 탭 - '나의 수업 일정' 탭을 통해 방과후 수업 참여

❖ 추진 일정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

❖ 원어민화상콜센터는 매 학기 방과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가지 준비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교재 개발로서 화상 수업 경력 2년 이상의 원어민 교사 2명의 주도하에 총 5명의 원어민 교사에 의해 이뤄진다. 교재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에 맞춰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증진을 목표로 하며, 내용은 상황별 필수 영어회화 표현들을 Q&A, 역할놀이, 게임 등을 통해 익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매년 수준 높은 교재 개발을 위해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방과후 수업 운영과 교재 제작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방과후 수업 실시 전, 수업 참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이다. 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홈페이지에 구축된 화상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 기능 사용 방법, 장애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컴퓨터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화상 장비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원어민 교사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더불어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과도 인사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방과후 수업 설명회에서 원어민 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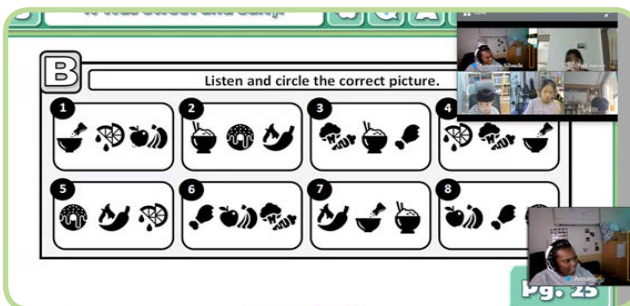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2

※ 2020년과 2021년 ‘방과후 수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방법 매뉴얼」 동영상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업 참여 방법을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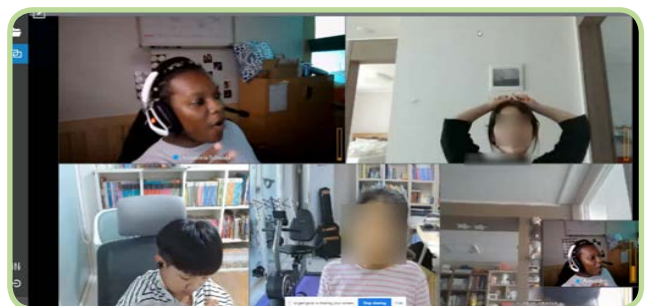
원어민 선생님과 하는 방과후 수업, 함께라서 즐거워요

❖ 방과후 수업은 동 학년 4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원어민 교사 1명과 함께 수준별 그룹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준은 총 5가지 수준으로 상(High), 중상(High-intermediate), 중(Intermediate), 중하(Low-intermediate), 하(Low)로 나뉘며,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반 배정을 받게 된다. 본격적인 수업의 시작은 학교의 신학기 시작과 마찬가지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작되며,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인사에 어느 누가 먼저 대답을 할까 하며 눈치 게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1~2주가 지나면, 원어민 교사의 역동적인 제스처와 높은 톤의 목소리에 어느새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거나, 표현을 따라 읽어보자는 원어민 교사의 지시에 떼창을 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 연습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니, 교실 수업 못지않게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친구를 위해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학습 멘토가 되기도 한다. 즉, 방과후 수업은 원어민 교사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어 자신감을 고취하고, 동료 학생이 학습하는 모습을 통해 동기 부여 및 학습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상생 학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방과후 수업 1



원어민 교사와 함께 방과후 수업 2

방과후 수업 운영 중에 직면한 문제점 및 대처법

❖ 원어민화상콜센터는 2009년 오픈과 동시에 방과후 영어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는 안정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을 하여 수업 신청을 안내하며, 뉴스 보도 자료를 통해 원어민화상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매 학기 방과후 수업 신청은 몇 분 내로 마감되는 경우가 흔하며, 대기자가 학년당 수십 명에 이른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존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했던 난관에도 부딪히게 되었다.

방과후 수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상수업 접속 기기 장애

- 홈페이지에 구축된 화상 프로그램 설치 시, 각 가정의 디지털 기기 사양에 따라 설치 및 접속 장애 발생

신규 화상 프로그램 구축

-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불필요한 신규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로그인 후 바로 수업 입장 가능

방과후 수업 설명회 미 실시

-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화상 프로그램 관련 사전 교육 미 제공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동영상 제공

- 화상수업 접속 방법 및 수업화면에 제시된 각 프로그램 기능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
-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재하여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온라인수업 에티켓 교육 부재

- 온라인수업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에티켓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

온라인수업 에티켓 교육 실시

- 진단평가 실시 후, 수업 둘째 주 동안 화상수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및 유의사항 소개

원어민화상콜센터가 넘어야 할 향후 과제

❖ 원어민화상콜센터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등의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장소 제약 없이 수업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아날로그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요즘 시대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은 매우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업이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원어민화상콜센터의 수업이 인기가 높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 상황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로 인해 온라인 피로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방과후 수업은 18주라는 긴 호흡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현시점에서는 평균 이탈률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방과후 수업은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열린 자세를 갖고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